

# 양(量)과 질(質)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영농조합법인 소백양계

대구경북지소 과장 김 창호

소백산 철쭉, 부석사 무량수전, 풍기 인산, 단산 포도 등 수많은 수식어를 달고 있는 '선비의 고장 영주', 축산 진흥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으로서 진정한 한우소고기 맛을 느끼게 하는 '소백산한우'와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가 영주에서 터전을 마련하여 개발한 웰빙 브랜드인 살라리안 '소백산축돈'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청정지역에서의 계란 생산지로 유명하다.

## 현황 및 경영 방침

영농조합법인 소백양계의 시작은 1993년 산란계생산농가 4개소(푸른축산, 대평축산, 소백축산, 장미농원)가 12만수 입식으로 시작하였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대지면적 3만5천평 규모에 90만수규모(산란계 66만수, 육성계 24만수)로 성공한 모범적인 영농법인이 되었다. 지나온 10여년을 돌아보면 계란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내려 사업을 포기할 만큼의 시련이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좋은 계란을 생산하고자하는 한결 같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주주들의 끊임없는 재투자가 있었기에 시련을 견디고 일어선 것이다.

한올타리 안에 90만수 규모의 산란계를 관리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소백양계에서 가능했던 것은 성계사 11개동, 육추사 4개동을 하루 24시간 관리하기 위하여 단지내에 관리인들의 숙식을 위한 관리사(살림집)를 10채를 지어 가족들과 함께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 골칫거리인 계분도 활용하기 나름

축산단지가 있는 곳이면 환경오염 및 악취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소백양계단지에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첨단기술을 이용한 오폐수처리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철저한 계분관리로 노폐처리 시에도 육질이 좋아서 상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계란생산농가에서의 골칫거리로 취급되는 계분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폐기물이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다. 소백양계에서 1,000톤/월 가량의 계분이 나오지만 단지내에 계분비료공장에서 친환경

정정 계란 생산으로 유명한 소백 양계 단지(상)  
철저한 계란관리로 고품질 계란이 생산되는 계사(중)  
신선도와 견실함이 인정된 계란(하)



경 유기질비료로 생산하여 농협을 통해 농민들에게 질 좋은 유기질 비료를 공급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또한 수인성이 보장됨으로 일기양득의 제품이 되고 있다.

### 양(量)과 질(質)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다

소백양계에는 청정수복에서 추출한 북초산 분말제제와 유산균을 급여하여 생산되는 “네프란”이란 브랜드가 있다. 네프란 계란은 수년동안 고정거래처로 월 400만개 이상 꾸준하게 출고되고 있으며 계란의 신선도와 견실함이 인정되어 출고가격이 다른 지역의 계란보다 높게 측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백양계의 계란이 다른 지역 집하장으로부터도 좋은 계란임을 인정받아 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원료란으로 꾸준히 납품을 해 왔었다. 이후 (주)풍무원과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2004년 12월부터는 단지내 집하장에서 매일 350만여개의 계란을 등급판정 받아 출고하고 있다.

철저한 계란관리로 균일하고 좋은 품질을 인정받고, 꾸준한 재투자로 생산량도 확보하여 계란유통업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백양계단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고 있다. 등급판정 받은 계란 운송 시에 냉장탑차들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최근 6만수규모의 육추사(병아리 키우는 계사)를 새로 증축한 것도 계란의 도태시기를 앞당김으로 젊은 계란으로부터 더 좋은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소백양계는 생산에 머물지 않고 소비자를 가족처럼 생각하여 더 좋은 계란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끊임 없는 기술개발과 꾸준한 투자가 있어 양(量)과 질(質)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 또한 따뜻한 가슴속에는 원대한 목표가 있기에 더욱 발전할 것이다.

